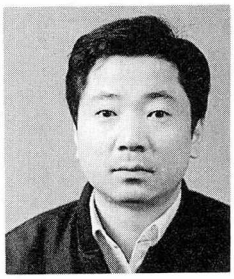
현장에 서서

내가 본 한국 양돈산업 전망



김 영 옥
(한국양돈개발원장)

1. 정저지와(井底之蛙)의 변(辯)

사람들은 자신의 생긴 모습도 다 비춰볼 수 없는 거울로 남을 평가하고, 또 세상만사를 나름대로 판단하며 살아간다. 그래서 똑 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견해가 서로 다르다.

"너 자신을 알라."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생각하며, 우선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. 나는 분명 우물안 개구리, 소위 정저지와(井底之蛙)임에 틀림이 없다. 내가 보는 하늘도, 내가 볼 수 있는 세상도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하늘과 세상처럼 극히 제한되어 있다. 우물안 개구리가 드넓은 하늘과 바깥세상을 알지 못하고, 우물안에서 제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듯이, 나 또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.

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, 느끼고, 안 「자기체험」외에는 도대체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. 그래서 남의 말도 믿지 못하는 것인지, 아니면 속아서만 살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, 언제나 불신(不信)은 계속 되어오고 있다.

난 내 얼굴도 다 비춰볼 수 없는 정말 쬐끄만 거울밖에 갖지를 못한 것 같다. 남들이 나를 보고 "김 원장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"는 소리를 가끔 하는 것만 보아도 난 역시 정저지와(井底之蛙)임에 틀림이 없다.

나보다는 확실히 더 큰 거울을 가진 사람들의 충고를 고마운 마음으로 듣곤 한다. 또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존재마저 확신(確信)을 못하고 있다.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냐, 전파나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시던 어느 목사님의 반문에 아무 소리도 못했지만, 그래도 확신이 서질 않으니 난 우물안 개구리일 수 밖에 없는가 싶다.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부처님의 극락을 믿는데 나는 왜 못 믿는지 모르겠다. 개그맨 이상호가 말도 되질 않는 소리를 지껄이다가 "나는 너를 믿는데, 너는 나를 왜 못 믿어?"하면서 남의 배를 툭툭 칠 때 배꼽을 잡고 웃곤 했었다. 불신시대(不信時代)를 잘 나타낸 그 말을 웃고만 넘길 수 없는 현세태가 오늘도 안타깝기 그지없다.

노대통령의 "믿어주세요"나, 농림수산부의 「축산업장기발전대책」을 믿는 사람이 없는 이 뿌리깊은 불신(不信)을 타파할 수는 없을까?

나처럼 우물안 개구리인, 볼품없는 정저지와(井底之蛙)가 한국양돈산업을 진단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은 외람(猥濫)일지 모르겠다. 그러나 내 나름대로 본대로, 느낀대로 "정말 이렇

다"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결국 믿어주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. 역시 「믿거나 말거나」이지만 정저지와(井底之蛙)의 변(辯)도 쬐끔은 도움이 될 것이다.

2. 한국양돈전망, 이렇다 !

누가 뭐래도 한국양돈전망은 밝다. 밝아도 보통 밝은게 아니고, 엄청나게 밝다.

그 이유는,

첫째,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밖에 없다. 이것은 경제이론을 내세울 것도 없이 상식론이다. 현재 한국의 양돈여건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도록 인위적인 제도나 제약이 너무나 크지 않은가 ?

둘째, 남들이 끝났다고 자꾸만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티거나, 새로 시작한 사업치고 실패한 예가 거의 없다. 사업중에서도 양돈산업 자체가 이 말을 입증해 왔고, 앞으로도 확인시켜 줄 대표적 유망산업이다.

예로서 지난해 양돈대불황에 굴하지 않고, 버티거나 용기있게 시작한 사람들은 성공했고, 또 호황이 만약 오지 못했더라도 국가적으로는 돈육자급 기반이 견고해지고, 세계최대 돈육수출국으로 부상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?

셋째, 우리 주변에 세계최대 돈육수입국인 일본이 있고, 식량난에 허덕이는 소련과 북한이 있다.

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출여건은 좋아지고, 무한한 잠재수요가 눈에 보이고 있다. 그리고 인구증가, 국민소득증가는 필연적인 돈육소비증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, 못 살거나 잘 살거나 우리 이웃나라들의 돈육수요증가를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질 않겠는가 ?

넷째,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은 정부와 생산자의 하기나름이다.

정부는 「UR대책」으로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가격을 외국수준으로 낮춰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. 그러나 가격격차가 너무 큰 쌀·보리·콩이야 솔직히 대책없다고 치더라도, 소비자가격에서 국제간에 큰 차가 없는 돼지고기는 현재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. 단지 돈육생산원가(豚肉生産原價)가 문제지만, 확실한 것은 정부와 생산자가 하기나름이다. 정부는 사료값과 기자재값을 지금보다 훨씬 싸게 공급할 방법도 알고 있고, 또 값싼 필리핀·월남·중국의 노동인력이 양돈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마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 불원간 인건비문제마저 해결될 수 있을 전망 아닐까 ?

생산자는 그 동안 축적된 세계적인 양돈기술과 그 지난 숱한 역경을 이겨낸 나같은 양돈전문가들이 있고, 또한 부단한 품종개량노력에 힘입어 세계최고형질의 돼지들이 총집합된 국내 종돈들이 확보된 지금 생산성향상에 의한 원가절감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.

어차피 전업화, 기업화될 수 밖에 없는 양돈사육규모나 시설의 자동화로 성력화해야만 하는 양돈산업의 특성 때문에 부합하는 제도와 투자가 뒤따라야만 된다. 물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기술과 적정한 자본도 투입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.

결론적으로 이제 아무나 양돈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.

그래서 이제부터는 하기나름인 것이다. 앞에서 열거한 모든 호조건들이 한국 양돈산업의 밝은 전망을 말해주고 있다. 누가 뭐래도 한국양돈산업의 전망은 엄청나게 밝다고 나는 본다.

물론 이 정저지와(井底之蛙)의 견해는 결국 「믿거나 말거나」이겠지만 말이다.

〈필자연락처 : (02)566-1795~6〉